

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쉬워진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 등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의 가입 절차가 간편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과 특약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할인 효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에서 건강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통상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금융원 조사 결과 건강체로 가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은 4~5%, 여성은 1~2%의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할인율

보험료 4~5% 깎아주는데 가입율은 4% 그쳐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 때 건강검진 1회로 단축

은 종신보험 기준 14.7%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집계 결과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한 13개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률은 약 4% 수준에 그쳤다.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번거로운 편이다.

금융원은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1회의 검진으로 줄이고 특약을 위한 검진 시에는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확대한다.

지금도 보험사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일반 보험료와 건강인 할인 보험료를 비교·안내하고 있으나 할인 종액이 아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기준으로 할인금액을 안내해 할인특약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충실히 전달되지 않았다.

히 전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업자 모두(신규·기존)에게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뿐 아니라 총 할인 보험료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자가 보험회사별 건강인 할인특약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 목록과 보험료 할인금액 및 요건 등을 보여주는 상품공시도 시행한다. 공시 내용은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체국택배, 서울·부산

당일 배송 확대 시행한다

우체국택배가 서울·부산 당일 배송, 선납 소포리밸, 안심소포 기본 수수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일특급서비스'를 서울·부산 구간으로 확대하고 우편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선납 소포리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부산 간 당일특급서비스는 항공과 KTX를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요금은 우편요금에 당일특급수수료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취급 중량은 20kg(140cm) 이내다.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번)를 이용해 당일특급서비스를 예약하면 우체국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접수해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사전예약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사전예약제도는 주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선납 소포리밸 서비스는 등기소포 요금이 포함된 선납 소포리밸을 사용하면 우체국 외 위탁접수처·방문수거·무인접수기 등에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고객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고 집·회사 등에서는 방문수거를 이용하거나 무인접수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회 10개 이상 구매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고, 50개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15% 할인율이 적용돼 지속적으로 소량의 물건을 발송하는 소상공인·중소업체 등을 저렴하게 소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은홍 기자



불가리, 하이 주얼리 컬렉션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1층 불가리 매장에서 직원이 그랜드 오픈을 기념으로 선보이는 '불가리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컬렉션의 대표 상품 '세르펜티(serpenti)' 컬렉션은 약 77개의 디아이몬드로 장식된 네크리스(4억 8천만원대), 약 52개의 디아이몬드와 오닉스가 함께 장식된 네크리스(3억원대), 약 52개의 디아이몬드 장식의 브레이슬릿(3억 5천만원대) 등으로 최상급 원석을 사용해 6개월에서 3년의 기간을 거쳐 단 한 점씩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갤럭시, 올 2분기 브랜드 순위 1위 수성

2011년 첫 1위 후 7년째…무풍 에어컨 40위·애플 아이폰 14위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브랜드가 2017년 2분기 브랜드 순위에서 1위를 수성했다.

3일 평가기관 브랜드스타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갤럭시는 브

랜드 가치 평가 지수 BST(Brand Stock Top Index)에서 940.8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첫 1위를 한 이후 7년째 이어가고 있는 기록이다.

갤럭시 제품의 경우 지난해 노트

7 밸브 이슈 등의 고초를 겪었으나 꾸준한 안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 향상, 신기술 도입 등으로 올해도 전재한 순위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삼성 가전에서 무풍에 어컨이 40위, 삼성 세프컬렉션은 62위, QLED TV가 63위 등을 기록하며 순위 안에 포함됐다.

애플의 아이폰은 14위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는 삼성에 비해 한참 떨어진 순위로 100위권에 진입했다.

뉴시스



해운대맥주·강서맥주·달서맥주

홈그라운드서 '이름값' 톡톡히 해

홈플러스 '해운대맥주' 해운대서 전국 평균 7.7배 더 팔려

전국 주요 지명을 딴 이름의 '지역맥주'들이 각 제품명으로 쓰인 지역에서 유독 높은 인기를 보이며 말 그대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해운대맥주'의 부산광역시 지역 점포 판매량은 전국 평균보다 약 3.2배 높은 실적을 보였다. 특히 해운대구에 위치한 점포(해운대점, 센텀시티점)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7.7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해운대맥주가 가장 많이 팔린 홈플러스 점포 10곳 중 9곳이 부산·경남 지역에 몰려 있었다. 판매 상위 10위권 점포 중 부산·경남 외 지역에 위치한 점포는 9위에 이름을 올린 서울 월드컵점이 유일했다.

또 해운대맥주는 '네낮에 해변'에서 마시는 맥주'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부산 외에도 해수욕장과 인접한 점포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해운대점(해운대해수욕장), 울산동구점(일산해수욕장), 죽도점(포항 송도해수욕장), 서귀포점(황우지해변·하효소 까해수욕장), 보령점(대천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홈플러스 점포의 해운대맥주 평균 판매량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대한민국 대표 휴가지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의 지명을 딴 '해운대맥주'는 ARK 맥주로 유명한 '코리아 크래프트 브루어리(KCB)'가 제조한 국내 생산 크래프트 비어다. 국내에서 대량 유통되는 크래프트 비어 중 최초

로 캔으로 제작, 해변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휴대성을 높인 '해운대 맥주'는 풍부한 흑아로미와 은은한 과인애플향 여운을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홈플러스 본사가 자리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명을 딴 '강서맥주' 역시 이름값을 제대로 했다.

강서맥주의 서울지역 판매량은 전국 평균의 약 2.4배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국 판매량 상위 10개 점포 중 8곳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 중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점과 가양점의 강서맥주 판매량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아(1.4배) 팔렸다.

서울 내에서도 서부지역의 판매량이 유독 돋보였다.

서울 시내 점포 중 강서맥주 판매 순위 상위권 점포는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서울 강서구, 미포구 등 서부지역에 위치한 점포였다. 1~3위 점포의 평균 판매량은 전국 평균의 약 4.4배에 달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이름을 딴 '달서맥주'도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달서맥주의 대구지역 판매량은 전국 평균보다 1.3배 높았으며,

특히 제품명으로 사용된 달서 지역 내 점포의 판매량은 전국 평균의 1.8배에 달했다.

반면 호남지역의 달서맥주 판매량은 전국 평균의 45%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